

2016 박근혜 대통령

제11차 ASEM 참석 · 몽골 공식 방문기



2016. 07. 14 – 2016. 07. 18

진정한 자유와 평화, 번영이 숨 쉬는 유라시아의 미래를 앞당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11차 ASEM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공식방문을 위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간 몽골을 방문해 다자회의, 양자회담, 한-몽골 정상회담 등 자유와 평화, 번영이 숨 쉬는 유라시아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박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여러 도전이 직면한 상황에서 자유무역 확산 논의를 주도하고, 관련국들과 정상회담을 통해 FTA 네트워크 확산 · 개선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차히아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틀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이후 신지도부가 구성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비롯해 총리, 국회의장 접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 공감대를 강화했다.

또,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에너지 신산업, 보건, 문화 등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고, 현지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 방문 일정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부각함과 동시에 주요 협력국과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북핵문제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 YEARS OF ASEM
ULAANBAATAR 2016

CONTENTS



- 04 방문의의
- 06 방문일정
- 08 ASEM 정상회의
- 20 한-라오스 정상회담
- 22 한-베트남 정상회담
- 24 한-EU 정상회담
- 26 몽골 공식 방문
- 28 신임 국회의장 접견
- 30 신임 총리 접견
- 34 비즈니스 포럼

제11차 ASEM 참석 · 몽골 공식 방문 일정

| 7월 14일(목) |

서울공항 출발
공항도착행사(울란바타르)

| 7월 15일(금) |

정상도착 및 인사교환
개회식
ASEM 유관회의 결과보고
전체회의 세션 I, II
한-라오스 정상회담
한-베트남 정상회담
한-EU 정상회담
단체 기념촬영
사교오찬
나담축제 관람
몽골 대통령 주최 갈라 만찬



| 7월 16일(토) |

Retreat 세션
폐회식

| 7월 17일(일) |

공식환영식
사전환담
정상회담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
동포간담회
공식만찬

| 7월 18일(월) |

신임 국회의장 접견
신임 총리 접견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공항출발행사





제11차 ASEM 정상회의

11th ASEM(Asia-Europe Meeting) summit

15-16 JULY 2016, ULAANBAATAR



ASEM 출범 20주년을 맞아 개최된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Summit)는 51개국 정상 및 각료급 인사를 비롯해 EU 및 ASEAN측 고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7월 15일~16일까지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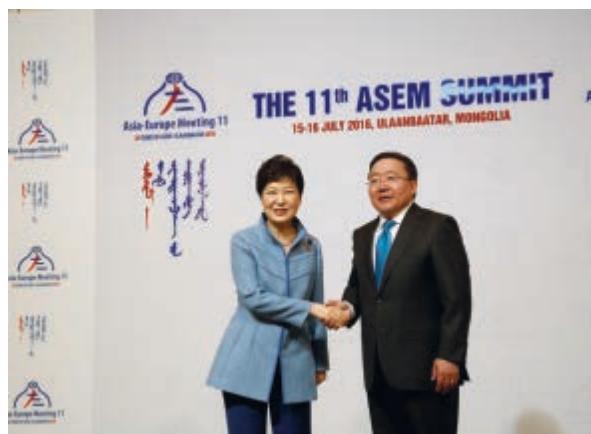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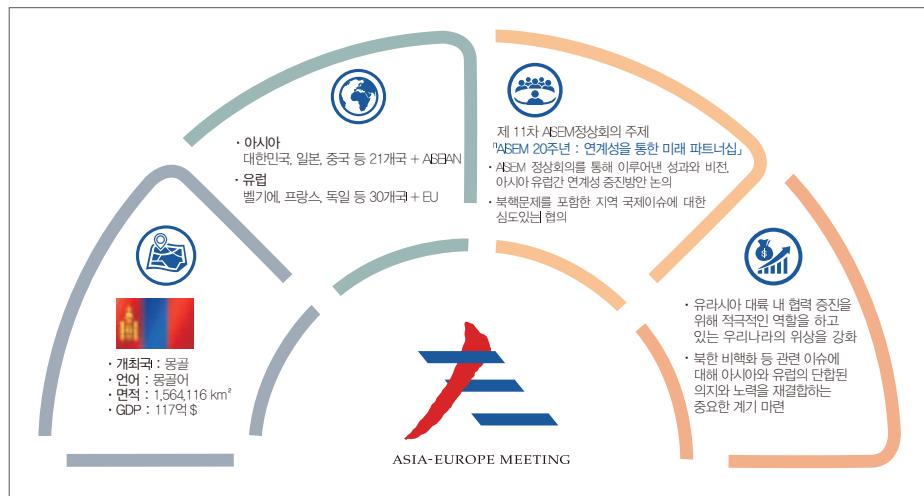
이번 정상회의는 <ASEM 20주년 : 연계성을 통한 미래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그동안 ASEM이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 아시아-유럽간 연계성 증진방안은 물론, 북핵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SEM 정상회의에 참석 함으로써 ASEM 창립회원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ASEM 회원국들의 지지와 노력을 재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 years of ASEM : Partnership for the Future through Connectivity

제11차 ASEM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몽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전체회의의 참석, 개별 양자 정상회담, 약식 회담, 오·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경제, 테러, 북핵문제, 기후변화 등 아시아와 유럽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각종 도전과 관심 사안에 대해 토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제3차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재무·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ASEM 회원국 간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1th ASEM summit

전체회의 1세션

박근혜 대통령은 〈ASEM 20년 : 성과와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체회의 1세션에서 첫 번째로 선도발언을 했다. 1세션에서는 아시아 3개국과 유럽 3개국 등 총 6개국이 선도발언을 실시했다.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애도로 표하며 선도발언을 시작한 박 대통령은 “우리는 20년 전 동서 냉전 종식 이후 ASEM을 출범시키면서, ‘아시아–유럽 연대를 통한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꿈꾸어 왔다”고 말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ASEM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ASEM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세가지를 강조했다.

- 역내 자유무역, 포용적 성장, 창조혁신 확산에 추동력 제공
- 아시아와 유럽의 연결과 단합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로서 ASEM의 역할 강화
- ASEM 운영방식 재검토

이어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천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13년간 개최되지 못한 ASEM 경제장관회의를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국 리커창 총리와 라오스 통룬 시술릿 총리가 지지를 보냄으로써 브레시트 이후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실천회의로서 ASEM 경제장관회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동 내용은 제11차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경제분야)에 반영됐다.



Retreat 세션

11th ASEM SUMMIT

제11차 ASEM 정상회의 둘째날 박근혜 대통령은 Retreat(자유토론) 세션에 참석해 북핵 · 북한문제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발언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의 온전한 꿈을 성취하는데 있어 여전히 빠진 하나의 고리가 있다. 몽골에서도 멀지 않은 북한이다”라고 말한 후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ASEM 회원국 정상과 대표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진정한 자유와 인간 존엄, 평화와 번영이 숨쉬는 유라시아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11th ASEM summit

결과문서 채택

이틀의 일정으로 몽골에서 개최됐던 제11차 ASEM 정상회의는 〈의장성명〉, 〈울란바타르 선언〉, 그리고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성명〉 등 3개의 결과문서를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1. 의장성명

- ASEM 역사상 북해 · 미사일 관련 가장 강력한 규탄 내용 포함
- 제6차 정상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북한 인권문제 반영
- ASEM 정상회의 최초로 의장성명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환영 문구 포함
- 2017년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 제안 환영
- ASEM 차원의 우리 주도 협력 사업에 대한 정상차원의 평가 확보

2. 울란바타르 선언

- ASEM 출범 2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ASEM 성과 평가 및 향후 발전 비전 제시

3.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성명

- 프랑스 니스 테러를 포함 모든 형태의 테러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단호하게 규탄 및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강조





나담축제

박근혜 대통령은 ASEM 전체회의를 마치고 정상들과 함께 몽골 울란바타르 칭기스 수레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나담 축제를 관람했다.

나담축제는 몽골 혁명기념일인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매년 개최되는 몽골의 대표적인 민속 축제이자 스포츠 축제이다. 유목민에게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면서 각 부족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몽골씨름, 말타기, 활쏘기 등 3가지 경기가 축제의 중심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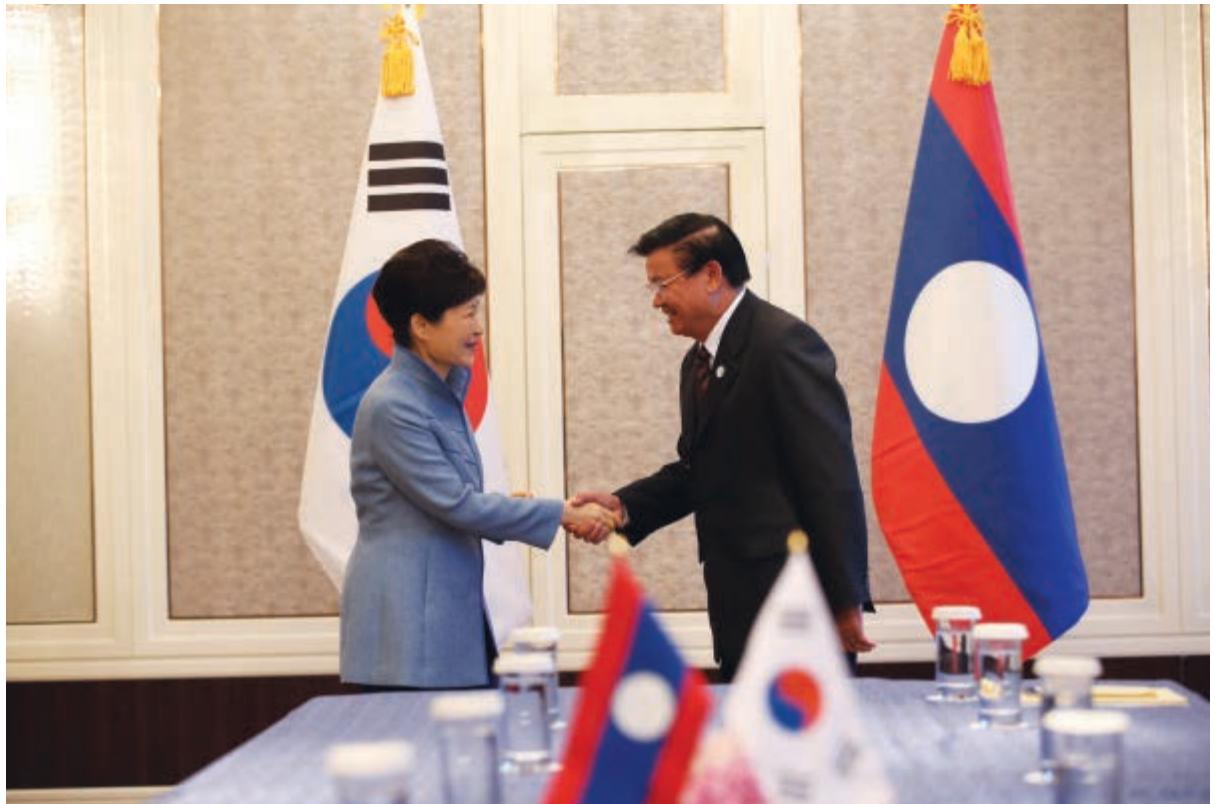




정상과의 만남

제11차 ASEM 정상회의 참석차 몽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 중 라오스, 베트남, 유럽연합(EU) 정상들을 만나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취임한 라오스와 베트남 신임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럽연합(EU) 지도부와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우리와 EU의 변함없는 관계를 재확인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핵 문제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주변국들 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4월 취임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신임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라오스는 우리의 중요한 아세안 파트너이며, 금년 아세안 의장국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국방협력단이 라오스를 방문하여 무관부 개설에 합의하는 등 양국간 국방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양국간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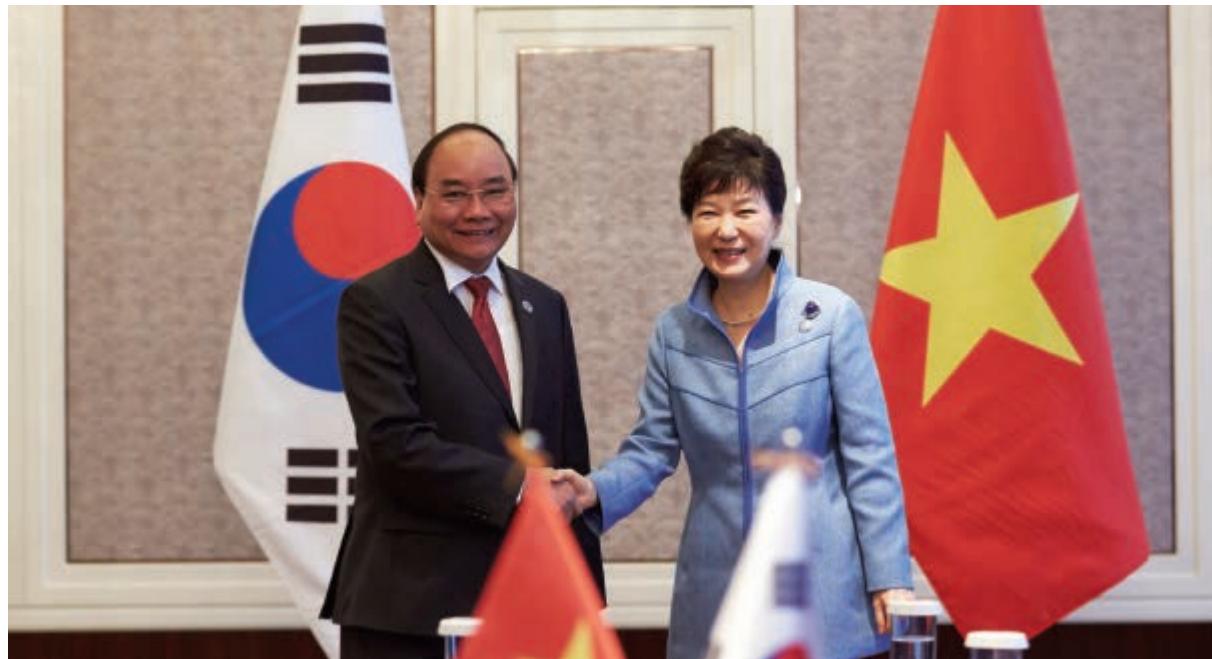
이에 통룬 총리는 2013년 춤말리 대통령 방한 등을 통해 합의된 양국 협력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라오스 내 여러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 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라오스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그 밖에도 양국 정상은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한 공조 기조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라오스 정부가 우리에게 보내준 협력과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아세안 차원에서 분명한 대북메시지가 발산되도록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역할을 당부했고, 이에 통룬 총리는 “라오스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한 간 통일 노력을 항상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라오스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된 첫 정상회담으로 1995년 재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 온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감과 동시에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한 계기가 됐다.



한-베트남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응웬 쑤어 푸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실질협력 강화 및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푸 총리 취임 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박 대통령은 푸 신임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 기반을 굳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통상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베트남 FTA 이행을 통한 양국간 교역의 확대균형 모색을 추진하는 한편 신에너지, IT, 제약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감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로 했다.

푹 총리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 외국인투자 중 1위가 되었다고 소개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확대를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베트남에 조성중인 한-베트남 인큐베이터 파크 입주 우리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센티브를 조속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푸 총리는 베트남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행복의 마을'로 부르며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협력 강화를 희망했고, 양 정상은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한-베트남 EDCF 기본 약정>의 조속한 타결을 기대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주한베트남 문화원 설치 등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제11차 ASEM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주변국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지난 6월 브렉시트 이후 양자관계,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여러 도전이 닥칠 수 있으나 EU가 슬기롭게 대처하여 더욱 굳건한 통합체로 발전할 것을 믿는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투스크 상임의장과 융커 집행위원장은 “브렉시트는 한-EU 관계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EU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협력파트너로 한국과 제3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상호 교역 증대를 위해 양자, 다자 차원에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난 10여년간 열리지 않았던 ASEM 경제장관회의를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며 EU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EU 차원의 추가적 독자 제재조치를 충실히 이행 하겠다”고 말하며,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9월에 이어 EU 신지도부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한-EU간 튼튼한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EU와의 공조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ASEM 정상회의 세션I 선도발언문

의장님, 그리고 ASEM 정상과 대표 여러분!

오늘 아침 현지시각으로 어젯밤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일 가능성이 있는 잔인한 행위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그 가족과 프랑스 국민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행위는 용납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년 전 동서 냉전 종식 이후 ASEM을 출범시키면서, 아시아-유럽의 연대를 통한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일한 정상간 협의체로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의장을 열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3대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서로 협력을 강화해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아직도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기후변화와 전염병,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 등이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영국의 브렉시트는 유럽통합의 장래 문제를 넘어, 세계화와 지역통합,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지속가능 여부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 인구와 GDP, 교역의 60%를 차지하는 거대 협의체 ASEM이 중추적인 역할과 파트너십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내야만 합니다.

각국 정상 및 각료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ASEM이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ASEM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경제의 성장이 자유무역의 확산과 궤를 같이 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무역은 많은 신흥국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서, 국가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해 왔습니다.

전 세계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장점을 바탕으로 최근 TPP, RCEP, TTIP, FTAAP 등 대륙을 넘는 다양한 메가 FTA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ASEM 차원에서도 자유무역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국가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자유무역의 혜택이 각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개방과 경쟁의 토양 위에, 창조와 혁신이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ASEM 정상회의가 역내 자유무역, 포용적 성장, 창조혁신의 확산에 추동력을 제공하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년 한국에서 ASEM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아시아와 유럽의 연결과 단합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로서 ASEM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계성 실무그룹'을 창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역간 연계성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한 이번 정상회의의 조치들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간 연계성 증진을 위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여타국 유사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 밀라노 정상회의에서 강조했던 아시아-유럽간 물리적 연계, 디지털 연계, 그리고 문화와 교육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지난 2년간 활발하게 추진되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라시아 연계성 강화를 위해 ASEM 차원의 노력을 배가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제협력과 연계성 증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ASEM의 운영방식도 재검토 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ASEM 파트너십의 운영 메커니즘으로 채택이 되었던 「아시아-유럽 기본 협력 지침서 2000」을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회원국들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쌍방향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ASEM의 토의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치 안보 분야 논의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비공식성(informality), 유연성(flexibility), 네트워킹(networking)이라는 ASEM 특유의 장점은 최대한 유지하고 발현시키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

ASEM 출범 2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를 분열시키는 다양한 도전들을 우리를 단합시키는 일치된 목표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ASEM 회원국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ナ

ASEM 정상회의 자유발언문

의장님, ASEM 회원국 정상 및 대표 여러분,

20년 전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온전한 꿈을 성취하는데 있어 여전히 빠진 하나의 고리(missing link)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곳 몽골에서도 멀지 않은 북한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과 자유와 평화를 향한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나,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은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존립 기반이라는 인류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간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의 실상이 고발되어 왔지만,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한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 유럽 의회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부족한 재원을 주민들의 삶 개선에 투입하기는커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으면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상충되는 정책노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 유럽 의회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부족한 재원을 주민들의 삶 개선에 투입하기는커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으면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상충되는 정책노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도발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ASEM이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유럽 간 연계나 협력 잠재력의 극대화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각국 정상 및 대표 여러분,

하나의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ASEM의 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한반도 통일입니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와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결국 한반도 통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수많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자유와 평화, 번영이 국제사회 전체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인간 존엄, 평화와 번영이 숨쉬는 유라시아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ASEM 회원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庄



몽골 공식 방문

Official Visit to Mongolia

17-18 JULY 2016, MONGOLIA

About Mongolia

- 수도 : 울란바르타 · 인구 : 306만명(15.12월 기준) · 면적 : 156.7만km²(한반도의 7.4배)
- 언어 : 할호몽골어 · GDP : 약 117.7억불 · 주요자원 : 석탄, 동, 몰리브덴, 아연, 금, 석유 등
- 수교 : 1990. 3. 26



몽골은 아시아내 사회주의 국가 중 최초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에 성공한 국가로서,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주요 협력 파트너이다.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100배 이상 성장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으며, 최근에는 한류 등 자발적인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엘베도르지 몽골대통령의 공식방한에 이어 2개월 만에 몽골을 공식 방문해 에너지 신산업과 보건·의료 등으로 협력분야 다각화,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으로써 양국간 호혜적 협력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몽골 정상회담

제11차 ASEM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몽골을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틀이라는 짧은 일정 동안 한-몽골 정상회담, 공식 만찬, 신임 총리와 국회의장 접견 외에도 경제, 동포 관련 행사를 소화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몽골은 구리, 석탄, 형석 등 80여종의 광물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제조업에 뛰어난 우리나라와는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협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 최근에는 한류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우리 중소기업의 유망 틈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공식환영식 참석 후 몽골 정부청사로 자리를 옮긴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이슈, 기후온난화 등 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 지난 2011년 수립된 <한-몽골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관계로 지속·발전 시켜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5월 방한 당시 합의한 사항들을 실천해 많은 협력에 관한 문서들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국 관계는 공동가치와 주민간의 교류 관계에 기반한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 공동기자회견 中



“저는 오늘 우리 두나라가 양자 차원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반영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앞으로 양국 관계에 있어 새로운 25년의 역사를 써 나가는데 중요한 출발점으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공동기자회견 中



한-몽골 정상회담

VISIT IN MONGOLIA



1. 교역 투자 확대 기반 마련

- 한-몽 FTA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공동연구 개시

2. 전력, 철도, 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 참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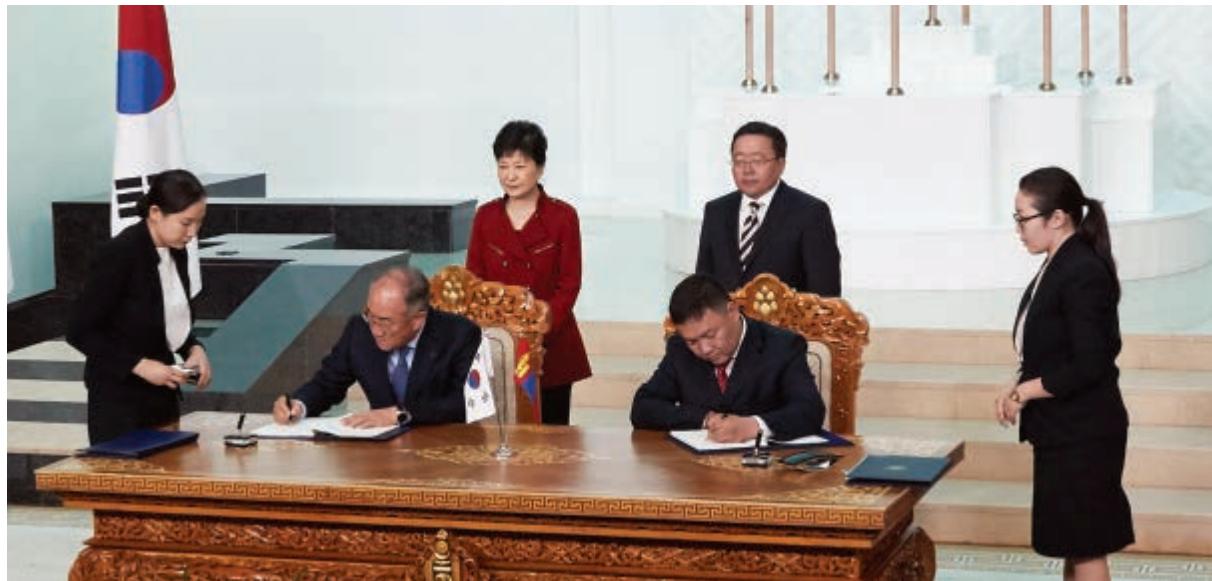
- 발전소, 송전망 등 27억불 규모의 전력 인프라 참여 추진
- 울란바타르 지역 철도, 지역난방, 용수공급 등 사업 참여 추진

3.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

- 풍력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 몽골 내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
- 몽골 고비지역 3,000ha 조림관리를 통해 사막화와 동북아 황사화산방지 협력 확대
-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4. 보건의료, ICT, 문화 등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

- 한국의 원격의료기술과 의약품의 몽골진출 기반 마련
- <문화산업협력 MOU>를 통해 한류 콘텐츠 진출과 문화유산 공동조사 실시
- 전자정부 진출 추진, ICT 교실 구축사업 참여





또, 박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미래세대간 교류 및 여론 주도층간 교류 등 질적으로 세분화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가 상대방 국민의 안정적인 방문 및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인적 교류 외에도 양국간 항공사 취항 문제, 문화교류 확대 등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정상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 뿐 아니라 북핵 · 북한문제 관련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다. 엘베도르지 대통령은 “몽골은 북핵 불용 및 동북아 평화 · 안정에 관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동 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북핵 불용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몽골측의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몽골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분야 16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MOU를 체결하고, 14개 프로젝트(44.9억불)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유라시아 연결 거점으로 부상하는 몽골과 사상 최대 경협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몽골의 제3의 이웃정책을 활용하여 교역투자, 인프라 진출, 기후변화 대응, 협력 다각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몽골 신정부 출범 후 몽골경제의 재부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몽골 공식 방문 계기 체결 MOU

명칭	체결 주체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I. 교역 · 투자 확대 (3건)		
민간경제협력확대 MOU	한) 대한상의 몽) 몽골상의	양 기관간 업무협력 관계 구축으로 교역, 투자확대 방안 협의
투자협력 MOU	한) KOTRA 몽) 투자청	기관간 사업 및 비즈니스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역 · 투자 분야 협력
중소기업협력 MOU	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몽) 몽골상의	양국 중소기업분야 정보교환, 파트너 발굴 및 알선 지원 등 진출 지원기반 강화
II. 에너지, 자원분야 (6건)		
★ 에너지 협력 MOU	한) 산업통상자원부 몽) 에너지부	양국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인적교류, 공동사업 추진 등 포괄적 협력 강화
★ 친환경 에너지타운 협력 MOU	한) 산업통상자원부 몽) 에너지부	몽골에 신재생 에너지와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이 결합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에너지효율협력 MOU	한) 에너지관리공단 몽) 에너지개발센터	에너지 효율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증진
전력계통 공동연구 MOU	한) 한전 몽) 몽골국영송전회사	몽골 전력계통 신뢰도 분석 및 중장기 계통계획 점검
신재생사업 공동개발 MOU	한) 한전 몽) Newcom	몽골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수립 및 투자, 활용사업에 대한 공동개발 추진
지질 및 광물자원 조사 협력 MOU	한) 지질자원연구원 몽) 광물자원청	몽골 광물지질도 작성, 광물자원 공동 조사 등 협력
III. 보건 의료 분야 (4건)		
★ ICT기반 의료기술 협력 MOU	한) 보건부 몽) 보건체육부	E-Health 시스템 등 우리의 우수한 의료 IT 기술의 몽골 진출 기반마련
★ 사회복지 협력 MOU	한) 보건부 몽) 인구개발사회복지부	우리 복지 제도 우수사례 전수, 정책교류 등 협력

명칭	체결 주체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건강보험분야 협력 MOU	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몽) 국가사회보험청	건강보험 정책, 제도 등 경험공유 및 인력 교류 등 협력
연금제도 협력 MOU	한) 국민연금공단 몽) 국가사회보험청	연금제도 관련 정보 교환, 인력교류 등 협력
IV. 문화, 산림 등 (7건)		
★ 문화창조산업 교류협력 MOU	한) 문화부 몽)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창조산업 관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콘텐츠 협력 등
★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한) 외교부 몽)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대중매체 분야 협력 증진
★ 문화유산 교류협력 MOU	한) 문화재청 몽)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재교류, 박물관 및 문화유산 연구 · 조사기관간 교류 등
★ 공동학술조사 협약서	한) 국립중앙박물관 몽) 몽골국립박물관, 역사학고학연구소	양국 국립박물관간 공동학술조사 협력
교육훈련 · 연구협력 MOU	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몽) 국립문화예술대	교육 · 훈련 · 연구협력, 학생 및 직원교류, 협동프로젝트 발굴, 커리큘럼 공동작업 등
★ 사막화 · 황사방지 협력 MOU	한) 산림청 몽) 환경녹색성장관광부	동북아 사막화 및 황사 피해 방지 · 저감을 위한 몽골내 조림사업 협력 등
농업협력 MOU	한) 농림부 몽) 식품농업부	우리의 농식품분야 기술 및 시스템의 몽골 진출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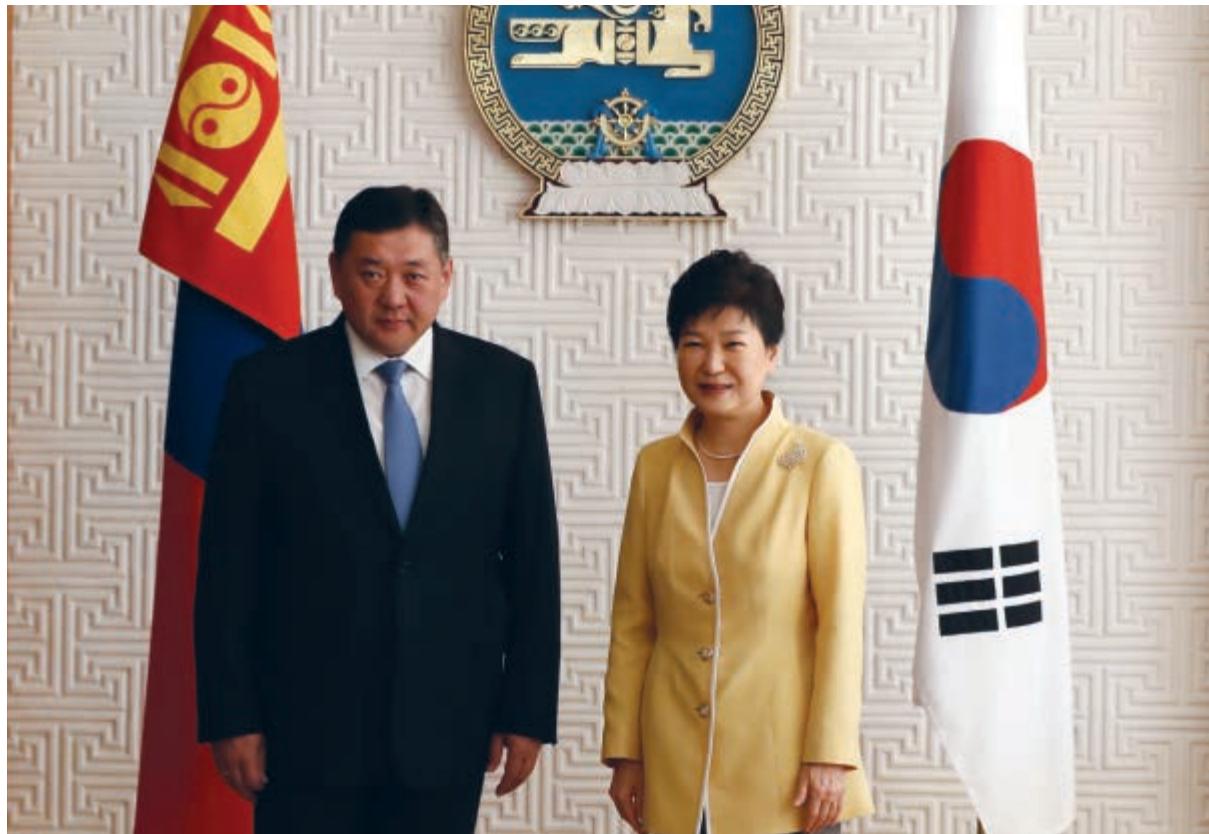
경제 분야 16건 포함 총 20건 MOU 등 체결 (정상임석하 체결 총 9건 ★표)

신임 국회의장 및 신임 총리 접견

몽골 공식 방문 마지막 날인 7월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미예곰보 엔흐볼드 신임 국회의장과 자르갈툴가 에르덴바트 신임 총리를 각각 접견해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와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엔흐볼드 국회의장은 울란바타르시장 및 부총리로 재임할 당시 한국을 수차례 방문한 몽골내 대표 지한파 정치인이며, 에르덴바트 총리는 정관계 입문 이후 꾸준히 경제부서에서 재직한 몽골 내 최고 금융·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규제나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뒤 양국 경협 전반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국회의장과 총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할 수 있도록 몽골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엉흐볼드 국회의장과 에르덴바트 총리는 “최근 총선으로 몽골 정부가 인민당으로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한국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협력사업도 잘 추진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이어 엉흐볼드 국회의장은 “양국이 〈한–몽골 경제협력협정(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한 것이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양국간 교역, 투자확대로 이어지도록 국회의장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엘벡도르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신임 국회의장, 총리 등 몽골 내 의전서열 1~3위를 모두 만남으로써 몽골 지도부와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몽골은 유라시아의 요충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만큼, 이곳에 계신 동포 여러분께서도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 공식 방문 첫 날, 엘베도르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울란바타르 시내 호텔로 자리를 옮겨 동포대표 75명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해 동포사회가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1990년 수교 당시 전무하다시피 했던 우리 동포사회는 최근 3,000여명 규모로 크게 성장했으며, 미혼모 및 고아 불우이웃돕기, 극빈층 지원활동 등을 통해 몽골사회와 화합함으로써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간담회장에 들어서자 몽골의 전통의상과 한복을 입은 화동이 박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국중열 몽골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님의 몽골 방문이 3천여 한인동포들의 자긍심 고취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감사의 표하고, 몽골 방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며 참석한 동포들과 함께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연대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은 2009년에 이어 7년 만에 몽골을 방문한 소회를 밝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삶의 터전을 다지며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동포들을 향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 한-몽골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몽골 동포사회에 맞는 맞춤형 영사서비스와 함께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몽골에 진출해서 양국 관계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추진해 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하나된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비전이 단지 우리의 꿈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동포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인사말을 마쳤다.

이 날 동포간담회는 한 시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동포사회 역량강화와 한-몽골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소금을 저으면 녹을 때까지라는 몽골의 격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완료하라는 의미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끈기 있게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 여러분 모두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해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 공식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부활의 중심인 몽골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 300여명을 만나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몽골은 최근 '제3의 이웃정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선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날 포럼을 공동개최한 양국 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 후 연대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양국 경제구조를 토대로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이 함께 나가야 할 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1. 교역과 투자의 확대

- <경제동반자협정(EPA) 공동연구>를 통해 교역과 투자에 관한 제도적 틀 마련
- 기업간 정보교환, 비즈니스 기회 발굴 확대

2. 전력, 교통, 도시개발을 비롯한 인프라 분야의 협력 강화

- 양국 기업이 참여 중인 제5발전소 사업의 성공적 진행
- <건설 및 도시개발협력 MOU>를 통해 몽골 상황에 맞는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모델 발굴

3. 신재생, 보건의료, 문화를 비롯한 협력 분야 다각화

- 몽골의 신재생 자원과 한국의 에너지 신기술 결합을 통해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양국 비즈니스 협력의 신모델 창출
- 친환경 에너지, 의료, 문화 분야에서 체결된 MOU를 기반으로 관계산업 협력 확대 추진

한편 이 날 오전에 개최된 포럼에 이어 오후에는 우리기업 54개사와 몽골바이어 19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 되어, 총 21건 126억원(1,105만불) 규모의 실질 성과를 창출하므로써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박 대통령은 몽골 총선 후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는 시기에 정상차원의 교류 뿐 아니라 양국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국 기업인들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한 것은 물론 몽골 내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6
박근혜 대통령
제 11차 ASEM 참석 · 몽골 공식 방문기

발행일 : 2016. 8.



